한국공인회계사회장 후보 인터뷰

“新 외감법 지켜내겠다… 먼지떨이식 감리 없도록”

❶ 채이배 전 의원

신외감법 개정 주도로 젊은층서 지지
회계사 전문성 존중, 과한 책임 지양
무리한 감리 발생않도록 제도 합리화

채이배 전 의원 학력 및 경력
- 인천 계산고 졸업
-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대학원 석사수료
- 20대 국회의원 (정무위·예결위·법사위)
- 한국공인회계사회 여성위원회 위원
-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
- 삼일회계법인

주요 공약
- 신 외감법 마무리
-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
- 한공회 공정한 운영, 상근회장, 청년·여성 등 참여 확대
- 선발인원 축소 및 중소시장 확대 (비영리조직 지정제, 표준시간 도입)

채이배(45·사진) 전 민생당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차기 회장 선거의 다크호스다. 대형 회계법인 출신 대표가 한공회 회장이 되는 전례를 깰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국회에서 맹활약을 펼쳐온 터라 젊은 회계사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채 의원 역시 본인을 “신외감법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며 국회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채 의원은 7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공회의 가장 큰 현안은 신외감법을 잘 보완하고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재계 등에서 신외감법의 세부내용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채 의원은 회계사의 전문성은 존중받되, 과도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과 질의회신을 책임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감사인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또 채 의원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 받는 회사의 상장 여부, 영리성 여부, 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화하고, 품질관리기준 역시 회계법인 규모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면서 “먼지떨이식 무리한 감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형 회계법인과의 ‘상생’도 강조했다. 현재 신 외감법이 대형 회계법인에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다.

채 의원은 “중소시장 확대를 위해 표준시간제와 지정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제도시행 시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중소법인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서울시, 경기도와 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로 촉발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서는 “전면 감사공영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공영제는 공공기관 등 독립된 제3자가 감사인 풀을 구성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다만 감사공영제 시행 시 회계 비용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경우 소규모 공익법인은 회계 비용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 지원 등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감사공영제를 위한 한공회 기금 설립’에 대해서는 “회원사 돈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서 “대신 한공회가 지원할 수 있는 회계 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낮추고, 회계법인 1인 지점을 허용 ▲회계사선발인원 축소 ▲한공회 모든 기구에 청년·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비상근 명예회장보다 연구하고 발로 뛰는 상근회장이 되겠다. 사외이사 등에 한눈팔지 않고 한공회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면서 “정부와 행정을 잘 알고, 국회와 입법을 잘 아는 일꾼을 뽑아 달라”며 강조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예시. /금융감독원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주의

금감원 Q&A

Q. 요즘 온라인상에서 “신종 재테크 수단”, “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FX마진 거래 광고를 자주 접하는데요. 업체에서는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며 홍보를 하던데, 믿고 투자해 봐도 괜찮을까요?

A.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해 투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합니다. 또 환율, 금, 가상화폐 등 상품의 시세 차트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경고 등을 게시하며 마치 합법업체인 것 처럼 위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위해 FX마진 거래에 투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제도권 금융회사(증권회사 등)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희주 기자 hj89@

KB국민銀

온라인 취업박람회 첫날 7만명 참여

400개 이상 기업 참여 신청
시간·장소 구애없이 구직 장점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KB굿잡 사이트를 통해 개최 중인 ‘2020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구직자 7만 여명이 몰렸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KB굿잡은 KB국민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 1월 출범한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다.

KB굿잡을 통해 지금까지 1만5906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달 기준 KB굿잡을 통해 제공된 일자리정보도 누적 6만2000여개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인재채용 기회를 마련하고,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상반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프라인 현장박람회 개최가 어려워졌지만 위축된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박람회로 전환해 개최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단독 온라인 취업박람회임에도 개최 첫 날부터 6일 동안 7만명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참여하는 등 오프라인 취업박람회 못지않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00여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었던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며 준비단계에서부터 성황을 이뤘다. 최종 307개 기업의 참가 확정으로 기존 200여개에서 그 규모를 확대한 ‘2020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구직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취업박람회 포스터 /KB국민은행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PC와 KB굿잡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취업박람회의 가장 큰 장점이다.

온라인상에서 박람회 참여 구직자의 입사지원과 구인기업의 입사 제의를 실시간 쌍방향으로 지원함은 물론, 이용매체별(PC/모바일앱) 이용가이드를 제작·운영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온라인 박람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현회계법인

컨설팅부문 대표에 배홍기

서현파트너스와 서현파트너스의 업무 제휴사인 서현회계법인(이하 서현)은 최근 글로벌 회계 및 경영자문사인 PKF의 국내회원사(멤버펌) 자격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PKF는 영국에 본부를 둔 글로벌 펌(Global Firm)으로 150개 국가에서 1만8000명의 전문가들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PKF는 국제적 감사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엄격한 룰을 적용하지만 회원사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대부분 회원사들이 장기간의 멤버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컨설팅부문 대표로 배홍기 전 삼정KPMG회계법인 부대표(사진)를 영입했다. 배홍기 대표는 삼정KPMG회계법인에서 감사본부장, 마케팅본부, 컨설팅부문 부문장 등을 역임한 만큼 마케팅 파워와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배홍기 대표는 “중견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원 펌(One Firm) 체제로 내실을 다지며 최고의 성장률로 급성장하고 있는 서현회계법인이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견 회계법인의 성장과 발전이 곧 한국회계산업 전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돼 서현회계법인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